あらしのよるに

あらすじ 韓国語版 2018.11.1.

신작 가부키 폭풍우 치는 밤에

해설과 볼거리.

그림책, 동화 작가인 키무라 유이치きむら・ゆういち의 작품 "폭풍우 치는 밤에"는, 폭풍우가 치던 밤, 어둠에 휩싸인 오두막에서 만나게 된 늑대와 염소가 "폭풍우 치는 밤에"를 암구호로 하여 재회한 뒤, 우정을 쌓아감에 따라 전개되는 이야기로,1994년 10월에 발표되었습니다.

홋카이도**北海道** 아사히카와**旭川**, 아사히카와 동물원의 사육사를 거쳐 현재는 그림책 작가로 활약하고 있는 아베 히로시あべ**弘士**의 그림에 의해 그려진 늑대 가부와 염소 메이의 생동감 있는 모습과 템포가 좋은 회화에 의해 전개되는 세계관은 많은 독자들을 매료시켰습니다. 그 결과, 원래는 한 작품으로 끝날 예정이었던 작품이, 6번째 작품인 "눈보라의 내일"까지 이어지는 장편이 되었으며, 더욱이 특별편이었던 "하얀 어둠의 끝에서", 완결편 "만월의 밤에"가 출판되어 아이들뿐만 아니라 어른들에게도 사랑받는 작품이 되어, 발표로부터 20년이 지난 오늘날에서도 독자들에게 감동을 주고 있습니다.

그 후, 일본의 초등학교 교과서에 수록되게 된 것을 시작으로, 영화, 소설, TV방송 소재가 되어, 뮤지컬 등의 무대화되기에 이르렀다. 더욱이 2015년 9월 교토에선 신작 가부키로서 상연되어 커다란 반향을 일으키며, 다음해인 2016년 도쿄 가부키자에서의 재상연이 실현되었고, 나아가 2018년 11월 하카타자에서의 재상연에 이릅니다. 원작의 세계관과 풍미를 해치지 않고 다케모토**竹本**나 나가우타**長唄**등의 가부키 음악과 일본무용 요소를 시작으로 가부키의 고전적인 연출이나 기법을 이용한 작품이 됩니다.

늑대와 염소 사이에 생겨난 비밀스러운 우정. 그림책 원작인 화제작이 드디어 하카타자에!

어느 폭풍우가 치던 밤, 자그마한 오두막에서 날씨가 나아지길 기다리던 늑대 가부와 염소 메이. 어둠 속에서 서로의 모습을 알지 못한 채, 두 동물들은 즐겁게 이야기를 나누며 "폭풍우 치는 밤에"를 암구호로 다음날 만날 것을 약속합니다. 그리고, 폭풍이 지나간 다음날, 가부와 메이는 서로의 모습을 알곤 놀랍니다만, 메이와 친구가 되고 싶었던 가부는 염소가 무척이나 좋아하는 먹이란 것을 숨기고선 메이를 맛있는 풀이 자란 곳으로 안내합니다.

한편, 늑대 기로는 자신의 한쪽 귀를 물어뜯는 염소에게 깊은 원한을 품고 있었습니다. 이상한 마술을 터득한 오바바에게 한쪽 귀가 원래대로 돌아오는 방법을 가르침 받아, 가부와 함께 있는 메이를 습격합니다만 가부는 메이를 감싸며 포로의 몸이 되고 맙니다. 자신을 감싸곤 잡혀버린 가부를 구해주려 돌감옥에 잠입하는 메이였지만, 기로와 그 부하들에게 발각되고 맙니다. 하지만 그 곳에, 메이를 도와주러 염소 동료들이 나타납니다. 늑대와 염소들이 서로 엉켜 싸우며, 한창 싸우던 도중 설산의 정상까지 도망친 가부와 메이였지만, 이윽고 기로 일행에게 궁지에 몰리게 되어...

교토 미나미자**京都・南座** 가부키자에서 상연된 신작 가부키가 드디어 하카타자에 등장. 인기 그림책의 세계관을 그대로, 가부키에서만 볼 수 있는 연출을 집어넣은 화제작을 즐겨보세요.

<발단>

이곳은 깎아지른 듯한 바위산. 바리를 선두로 하여 오바바, 가이 등 그 주변을 세력권으로 삼고

있는 늑대 무리들의 중요 인물들이 차례차례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나타난 기로가 명령을 내리자, 일동은 희생양인 염소들을 쫓아갑니다.

장소가 바뀌고, 끝없이 이어지는 초원에선, 오지지를 시작으로 염소 무리들이 즐겁게 춤추고 있습니다. 거기에 타부와 하쿠를 동반한 미이 공주가 더해지나, 그곳을 늑대 무리들이 습격해옵니다. 그러던 도중, 도망이 늦었던 마츠는 기로의 한 쪽 귀를 물어뜯고 오지지에게 자신의 아이들을 포함해 어린 염소들을 부탁한다며 말을 남깁니다.

한편, 짝귀가 되어버린 기로는 마츠를 물어 죽이고는 그 장소에 온 늑대의 리더마저 기습해버립니다. 실은 기로는 이전부터 무리의 리더가 되려고 계획을 세우고 있었습니다. 그 때문에 바리와는 미리 말을 맞추곤 급히 달려온 동료들에게 리더를 해친 것은 염소들이라고 전했습니다. 가이는 리더의 죽인 적을 토벌할 것을 맹세하나, 리더의 사체 옆구리에 떨어져 있던 창의 끝부분을 보고선 기로에 대한 의심을 품게 됩니다.

<서막 제 1장 폭풍의 밤>

그 후로 세월이 흐르고, 어느 날 밤. 격심한 바람을 피해 허술한 오두막에 몸을 옮긴 염소 메이는 어느새 깜빡 졸아버립니다. 그리고, 염소 무리가 늑대에게 습격당하는 꿈을 꾸곤 깨어납니다. 밖에선 바람이 차츰차츰 더 심해지고 있던 도중, 오두막에 들어온 것은 늑대인 가부. 어둠 속에서 서로가 늑대, 염소라곤 깨닫지 못한 채 말을 주고받는 가부와 메이. 서로가 공통점이 많은 것도 포함해 가부와 메이는 의기투합하여 "폭풍우 치던 밤에"를 암구호로 하여 다음날 재회하자며 약속하는 것이었습니다.

<서막 제 2장 재회>

폭풍이 물러간 다음날. 구름 한 점 없는 맑은 하늘 아래 메이가 오두막에 찾아갑니다. 암구호만을 단서로 서로를 기다리는 것에 설레이던 메이는 상대에게 전해줄 간단한 선물을 찾으러 나갑니다. 그곳에 나타나는건 가부. 메이와 마찬가지로 오늘의 약속을 기대하고 있던 가부는 도중에 발견한 행복초를 선물로 가져옵니다. 그곳에 우연하게도 마찬가지 행복초를 발견한 메이가 돌아옵니다. 서로의 기척을 깨닫곤 암구호를 말하는 가부와 메이. 상대가 늑대와 염소라는 것을 알고선 크게 놀랍니다만, 서로가 행복초를 교환한 것을 계기로 친근감이 생깁니다. 하지만, 염소는 늑대의 먹이. 특히 가부에게 있어서는, 염소는 무척이나 좋아하는 먹이였습니다. 그 욕망을 억누르면서 가부는 맛있는 풀이 자라고 있는 장소로 메이를 안내합니다.

시간이 눈 깜짝할 새에 지나버리고, 가부와 메이는 돌아가기로 합니다. 그 때 천둥이 치게 되고, 천둥을 싫어하던 가부와 메이는 근처의 동굴로 도망칩니다만, 메이가 발을 헛디뎌 상처를 입고 맙니다. 메이를 간호하던 가부는 메이가 자신을 "친구"라고 불러주었던 것을 무척이나 기뻐하며 다시 만날 약속을 하며 헤어지게 됩니다.

<2막 제 1장 오바바의 방>

바라던 대로, 무리의 리더가 된 기로였지만, 짝귀가 된 것을 치욕스럽게 여기고 있었습니다. 그런 기로에게 의심을 품고 있던 가이는 리더를 살해한 범인을 독자적으로 조사하겠다며 말하곤 떠나갑니다. 한편, 기로는 오바바를 불러내 귀를 원래대로 만들 방법이 없냐며 물어봅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오바바는 기로에게 아첨하여 상을 받을 좋은 기회라고 생각하여, 필사적으로 생각한 결과 마법의 거울을 이용하기로 합니다. 그것에 비추어진 것은 염소인 메이와 미이 공주,

타부의 모습. 같은 달, 같은 날, 같은 시간에 태어난 소꿉친구들인 세 마리의 염소들은 기로의 귀를 원래대로 돌리기 위한 실마리가 될 것이라 말하는 오바바의 이야기를 믿은 기로는, 바리를 포함한 수하 늑대들에게 세 염소의 행방을 찾으라 명령합니다.

<2막 제 2장 몰래 다가오는 그림자>

이곳은 사와사와산 산기슭에 있는 숲. 이곳에 너구리, 다람쥐, 토끼 등 숲의 동물들이 모여 요즘엔 염소를 붙잡은 늑대들이 평소처럼 곧바로 먹는 것이 아니라 다른 염소의 행방을 찾고 있다는 것이 이상하다며 이야기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또한, 늑대와 염소가 손을 붙잡고 걷고 있던걸 보았다는 동물도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옛날에 늑대의 귀를 물어뜯은 염소가 있었다는 이야기를 떠올린 동물들이, 그 염소가 이 주변에 살고 있던 늑대였다며 말합니다. 그곳에 늑대들 지그와 자크가 모습을 보이며 늑대와 염소의 이야기를 자세하게 들려 달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엿보고 있던건 타부와 하쿠. 두 마리의 염소들은 늑대들의 동태를 전하기 위해 급히 살고있는 마을로 돌아갑니다.

<2막 제 3장 달밤>

그 후 며칠 뒤의 달밤. 달구경을 가자고 하는 가부의 권유가 적힌 편지를 받은 메이에게 말을 건네는 미이 공주. 최근 메이의 모습에서 무언가 숨기고 있는게 아닌지 물어보는 미이 공주는, 혹시나 고민이 생겼다면 숨김 없이 이야기해주길 바란다고 전하며 그 장소를 벗어납니다. 그 말이 가슴에 맴도는 메이. 실은, 늑대인 가부와 친구가 된 것을 기쁘게 생각하는 한편, 그것을 메이 공주를 시작으로 염소 동료들에게 털어놓을 수 없는 것이 마음 속 응어리가 되어 있던 것이었습니다. 그리곤 가부한테서의 권유를 받아들여 만나기로 한 바위산에 향하는 메이. 그 모습을 본 타부는 메이의 뒤를 쫓아갑니다. 더욱이 그것을 동료들인 염소무리가 깨닫곤 그 뒤를 쫓으려 하나, 오지지가 그것을 달래며 하쿠와 함께 메이와 타부의 뒤를 쫓아갑니다.

<2막 제 4장 만월의 아래>

그리곤 바위산에선, 가부와 메이가 사이 좋게 나란히, 아름다운 달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장소에선 옛날에 늑대 무리의 리더였던 아버지가 가부를 데리고서 왔었던 추억의 장소. 그 소중한 장소에서 동료인 늑대들에게 바보취급을 당하며 자신감을 잃었던 가부를 향해 "스스로를 믿고서 자신답게 살아간다면 반드시 자신을 믿고서 인정해주는 친구가 생길거다"라는, 죽은 아버지의 말을 떠올린 가부는 메이야말로 죽은 아버지가 말한 "친구"라고 말합니다. 그 모습을 타부가 멀리서 바라보고 있던 중, 지그와 자크가 나타나 가부와 메이를 붙잡으려고 합니다. 가부는 메이를 도망치게 하려고 합니다만 그곳에 바리를 시작으로 기로, 오바바, 가이 등 늑대들과 오지지, 하쿠, 미이 공주마저 나타나 모두들 어둠 속에서 탐색전을 벌입니다. 그러던 중 가부가 메이에게 보낸 편지를 주운 오지지는 메이를 데리고 떠나갑니다.

<3막 제 1장 오바바의 방>

바위산에서 늑대들에게 붙잡힌 미이 공주와 타부. 이 두 마리의 양을 단서로 목적을 달성할 수 있을거라 생각하는 기로는, 타부의 취조를 오바바에게 맡깁니다. 거기서 오바바는 타부의 동료들이 있는 장소를 자백시키려 비전의 약을 만들어 마시게하려 하지만 실패하고 맙니다.

<3막 제 2장 집촌>

한편, 염소 집촌에 돌아온 메이는 미이 공주와 타부, 가부를 구출하기 위해 늑대 무리들의 본거지에 향하려 합니다. 이것을 동료 염소들이 말리고 있던 중에 오지지가 모습을 나타내, 메이의 어머니인 마츠가 늑대에게 살해당한 경위를 털어놓습니다. 그리곤 어머니가 늑대에 의해 살해된 것과 마찬가지로 늑대인 가부를 친구라고 생각하고 있는 어긋난 생각을 타이릅니다. 하지만, 가부는 다른 늑대들과 다르다고 믿고 있는 메이는 가부와의 우정을 확인하기 위해 늑대들의 본거지에 향하고 맙니다.

<3막 제 3장 기로의 방>

그 무렵, 기로는 미이 공주를 심문하여, 동료들이 있는 장소를 들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미이 공주는 완강하게 거절합니다. 그런 미이 공주를 달아매고 기로는 가부를 취조하기 위해 떠나가자, 그곳에 가이가 나타나 미이 공주를 구하는 것이었습니다.

<3막 제 4장 돌감옥>

한편, 가부는 돌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바리가 나타나, 메이가 있는 장소를 밝히라며 강요합니다. 그곳에 메이가 잠입해오고, 재회를 마친 가부와 메이였지만, 친구라고 말하면서도 늑대와 염소라는 점에서 의심을 계속 품고 있었다는 것을 밝히는 가부와 메이. 이리하여 본심을 털어놓으로서 가부와 메이는 새로이, 서로를 진실한 친구라고 확신하게 됩니다. 그곳에 돌연 기로가 나타나 자신이 메이의 부모를 죽인 원수라는 것을 밝히며 덤벼듭니다. 그곳에 미이 공주와 타부를 동반해 가이가 나타나, 이전에 발견한 창의 끝부분을 증거로 하여 가부의 아버지기도 한 죽은 리더를 죽인 것은 기로라는걸 밝힙니다. 악행이 드러난 기로는 바리 등 부하 늑대들과 함께 가부 무리에 덤벼듭니다. 그곳에 다시 타부와 하쿠 등, 동료 염소들과 함께 오지지가 찾아와 하쿠가 고심하여 만들어낸 대포를 쏴댑니다. 이리하여 염소와 늑대가 어지러이 싸우는 도중, 가이한테서 아버지의 유품을 건내받은 가부는 메이와 함께 그 장소에서 도망칩니다. 기로는 가로막는 가이를 쓰러뜨리곤 가부와 메이를 쫓아갑니다.

<3막 제 5장 눈사태>

가부와 메이는 기로 무리의 추적에게서 도망치기 위해 목적지도 없이 떠돌고 있었습니다. 시간이 지나 이미 눈이 깊게 쌓이는 겨울이 되어있었습니다. 기진맥진한 메이는 이대로라면 함께 목숨을 잃게 될 것이라 생각해 가부에게 자신을 먹고서 살아남아달라 애원합니다. 하지만 가부가 그것을 승낙할리는 없었습니다. 그러던 중 기로와 그 무리가 나타나 덤벼듭니다. 메이를 지키려고 하는 가부는 필사적으로 싸우지만, 기로와 함께 돌연 일어난 눈사태에 휩쓸리고 맙니다.

<3막 제 6장 두 그림자>

메이도 또한, 눈사태에 휩쓸려버렸지만 구사일생으로 살아납니다. 정신이 든 메이가 주변을 둘러보니 그곳엔 가부가 있었습니다. 그것을 알고 기뻐하는 메이였지만, 가부의 모습이 지금까지와는 달랐습니다. 그런 가부에게 메이가 말을 건네자, 메이를 친구가 아니라며 단언하는 가부는 커다란 날붙이를 들고선 메이를 쫓아갑니다. 자, 그럼 가부와 메이의 운명, 이야기의 결말은...